

홍선행 씨, 무형유산 '고분양태' 보유자 인정

“20여 년간 전통기술 전승 위해 힘써”

제주도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고분양태' 신규 보유자로 인정된 홍선행(65) 씨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도청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오영훈 지사는 홍 씨에게 보유자 인증서와 꽃다발을 전달하며 오랜 시간 전통 기술 전승에 힘써 온 노력을 격려했다.

홍선행 보유자는 2001년부터 명예보유자인 고(故) 송옥수 씨와 당시 보유자였던 고양진 씨에게 고분양태 전통 기법을 전수받으며 제작에 입문했다. 지난해 2월 이후 도내 고분양태 보유자가 공식인 상황에서도 전승 교육을 꾸준히 이어 가며 고분양태 전승 기반을 지켜왔다.

오영훈 지사는 “술한 역경을 견디며 제주의 전통을 지켜온 보유자와 그 곁에서 묵묵히 힘이 돼준 가족·친지에게 감사드린다”며 “제주의 정신과 혼



이 갖든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전승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분양태’는 갖의 차양 부분인 ‘양태’를 대오리로 정교하게 엮어 만든 전통 공예다. 제주에서만 전승되는 독자적인 제작 방식으로 장인의 섬세한 손끝과 인내가 필요하다. 1998년 4월 제주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오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밀반찬 전달

오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진영진·강리선)는 지난 7일 홀로 사는 어르신 50가구에 밀반찬 6종과 계란, 빵을 전달하면서 안부를 확인 하는 ‘야심궐 밀반찬 배달 사업’을 추진했다.

진영진 위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돌봄 문화를 조성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부스 운영

대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란·한분도)는 지난 7일 개최된 2026년 제12회 대정안팎수 마농박람회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이날 수익금은 대정읍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할 예정이다.

고영종 씨 '수필 오디세이' 신인 작가상

중등 교원으로 퇴임한 제주 고영종(사진)씨가 최근 '수필 오디세이' 2026년 여름호(통권 제26호) 신인 작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수필 '조명등 아래서'. 병실 조명등 아래에서 아버지를 밤새 간병하며 인간 중심 교육철학을 성찰한 글이다.

고영종 수필가는 당선 소감에서 “비로소 숨어있던 눈이 폭피를 뚫고 세운을 틔우듯, 이번 수상은 제 안의 가능성을 믿고 글쓰기에 매진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올곧은 정신으로 더 깊이 삶을 들여다보며, 진정성을 담아내는 글을 쓰겠다”고 다짐한다고 했다.



포교사단 서귀포총괄팀 경로식당 급식봉사

포교사단 제주지역단 서귀포총괄팀(지역봉사·포교·교정교회·총괄팀장 김창석)은 지난 10일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강희정)이 운영하는 경로식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봉사를 펼쳤다.

이날 조리과 배식, 식당 정리 등 급식 전반을 함께 하며 어르신들에게 정성이 담긴 식사를 제공했다. 또한 생신을 맞은 어르신들을 위해 생신 축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선물을 전달했다.

서귀포시 생태계 교란생물 이해 교육 실시

서귀포시는 지난 10일 서귀포시청 1층사 문화강좌실에서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참여 4개 환경단체 관계자와 공직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생태계 교란생물 이해와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회, 서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시지회,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서귀포시지부 등이 교육에 참가했다.

이번 교육은 국립생태원 외래생물팀 전문가 2명을 초빙해 지역 자연 생태계를 위협하는 교란 생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란종별 효과적 제거 방법에 관한 학습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생태계 교란생물 개념 이해와 서귀포시 주요 교란종 서식 현황, 주요 종별 생태 특성 및 관리방안, 효과적인 제거 방법과 관리사례 공유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효돈농협 고향주부모임 보리 직거래장터

효돈농협(조합장 백성익) 고향주부모임(회장 김경희)은 지난 9일 제주시 보리 소비촉진을 위한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다.

장터 수익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사용될 계획이다.



탐라라이온스클럽 43주년 기념 쌀 기탁

탐라라이온스클럽(회장 김현진)은 최근 창립 43주년과 회장·이·취임식을 기념해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대근)에 백미 500kg을 기탁했다.

물품은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결연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제주교도소, 국립제주호국원 참배

제주교도소(소장 박형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1일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국립제주호국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박형규 소장을 비롯해 각 부서장 등 7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호동 통장협의회 코스모스 꽃길 조성

이호동(동장 강동훈)과 이호동 통장협의회(회장 김형주)는 지난 10일 배나무 주변 풀베기 작업과 함께 코스모스 씨앗을 파종하는 등 마을 환경정비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은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과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제주시노인회 파크골프대회 개최

(사)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회장 문준식)는 지난 9일 제주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에서 '제3회 제주시 노인회장배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제주시지회 소속 경로당 회원 등 400여 명이 참가해 뜨거운 성원을 보였다.



주민과 함께하는 '연동 행복 음악회' 성료

제주시 연동(동장 문성조)은 지난 7일 삼다공원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2026년 연동 행복 음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문성조 동장은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들과 협력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마련해 주민 모두 행복한 연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인준 대표, 오현중·고 장학금 기탁

진영마트 양인준 대표는 최근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회장 정대근)를 통해 오현중과 오현고에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모범학생 장학금을 지정 기탁했다.



이도1동노인회, 역사·문화 탐방 실시

제주시 이도1동노인회(회장 김상수)는 지난 9일 노인회 회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동부지역 일대에서 역사·문화 탐방을 실시했다.

제주대 연구팀, 관광객 설문 분석 결과 발표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김기현 박사와 장모나 박사, 인화순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 기간 제주 방문 관광객 설문 600건과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 1360건을 분석한 결과, 제주 관광 이미지가 '인지적 불만'과 '정서적 만족'이 공존하는 이중 구조를 보인다고 밝혔다. 설문에서는 가격·렌터카·바가지요금 등 비용 관련 불만이 두드러졌지만, 블로그에서는 사진·맛집·카페·풍경·오류 등 감성적 만족 요소가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제주관광 회복을 위해 관광 불편 신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요금·서비스 정보를 공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SNS를 활용한 감성 콘텐츠 확산과 함께 전통 시장을 지역 식·상점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교통·주차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관광학회 학술지 '관광학연구' 제50권 제3호(2026년 5월호)에 게재됐다.



산남새마을금고 아동 지원 성금 후원

산남새마을금고(이사장 박성길)는 지난 8일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에 서귀포 지역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2년차 지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오현개발 김순희 대표 의료비 기탁

(주)오현개발 김순희 대표는 지난 10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연)에 도내 취약계층 의료비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